



# 공연 시장 넘어 문화예술 사고 파는 현장으로

제12회 해비치아트페스티벌  
6월 10~13일 표선면 일대 등  
전시·예술교육 부스 첫 설치  
해외기관 교류 등 네트워킹  
전야제는 6월 8일 서귀포예당



제12회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은 공연 작품을 사고 파는 현장을 넘어 문화예술 마켓을 꿈꾼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회장 김혜경)는 15일 제주도·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공동 주최하는 해비치아트페스티벌 운영 계획을 밝혔다.

이번 페스티벌은 6월 10~13일 도내 주요 공연장, 표선면 일대,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제주에서 열린다. 공연예술만이 아니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홍보할 기회를 만들었다. 6월 11~12일에는 제주 전통예술공연개발원의 '탐라순력도-다채로운 꿈' 등 35개 단체가 쇼케이스를 열어 전국 각지 문예회관에 판매할 공연을 선보인다.

교류협력 네트워킹도 준비했다. 6월 11~12일 해외기관·페스티벌 교류, 공연예술계 현안, 문화산업 이슈 등 5개 섹션이 마련된다.

부대 행사인 '제주인 페스티벌'도 다채롭다. 6월 7일 오후 7시엔 표선 해비치해변에서 뮤지컬배우 최정원, 이근명, 박소연의 갈라 콘서트로 첫 해변음악회를 연다. 6월 8~15일 서귀포예술의전당 등 4개 공연장에서는 초청작을 무료로 선보인다. 6월 7~16일 표선면 일대 14곳에서는 35개 단체가 70회에 걸쳐 프리지 공연을 펼친다. 6월 8일 오후 6시에는 서귀

포예술의전당에서 김도향, 뮤지컬 '파가니니' 갈라, 장필순이 꾸미는 전야제로 축제 분위기를 띄운다.

개막식은 6월 10일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제주 야외에서 개최된다. 오후 6시 제주시 뮤지컬 '만덕' 갈라 공연을 시작으로 엠비규어스댄스컴퍼니, 이화문, 하림, 박종화, 현대차 그룹 대학연극뮤지컬 페스티벌 수상자, 유엔젤보이스가 축하무대를 이 어간다.

해비치아트페스티벌은 2008년 공연 유통 활성화와 문예회관 운영 전문성 강화 등을 취지로 시작했다. 제주 읍면 지역인 표선면에 국내 공연 예술이 모여드는 축제로 회를 거듭할수록 지역과 밀착된 행사로 규모를 키워가고 있다. 자세한 일정은 공식 누리집(www.jhaf.or.kr) 참고, 문의 02)3019-5841. 전선희기자

전시 분야까지 포함하는 문화예술 페스티벌로 확대했다. 전국 문예회관에서 문화예술교육, 전시 사업까지 맡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결과다.

아트마켓은 6월 10~12일 190여개 공연·전시·예술교육 단체와 100여개 문예회관 부스가 설치된다. 공연 단체 등이 문예회관 부스를 직접 찾아

## 다양성영화 제작 지원 최고 1억원까지 상향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제주다양성영화 제작지원 공모를 벌이고 있다.

장편영화는 전년보다 늘어난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된다. 단편영화는 최대 1000만원, 신규 지원은 500만원까지 배정된다. 지원서 접수는 5월 16일까지 이루어진다.

영상문화육성지원 공모사업도 최대 지원 가능 금액을 늘린다. 접수는 5월 23일까지다. 제주로케이션 영상물 제작비지원 사업은 상시 접수를 받는다. 프리프로덕션 레지던스 지원사업은 시행을 앞둔 30일 이내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문의 064)735-0601.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설문대할망제 15일 제주돌문화공원에서 설문대할망 설화에 담긴 뜻과 모성애를 기리는 설문대할망제가 열려 여성 제관들이 제물을 올리 고 있다. 돌문화공원에서 이달 31일까지 설문대할망페스티벌이 계속된다. 강희만기자



양상철의 '빙마(憑馬)'.

## 새로운 심미 세계 향한 분투의 흔적

갤러리노리 양상철 초대전  
서예·회화 경계 부순 작업

서예를 기반으로 실험적인 작업을 이어오고 있는 양상철 작가가 봄날 저지문화예술인마을에 머문다. 이달 18일부터 6월 2일까지 펼쳐지는 갤러리노리 초대전이다.

양 작가는 대학에서 건축공학(건축디자인)을 전공했지만 일찍이 붓글씨와 인연을 맺었다. 서귀포 태생으로 중학교 시절 소암 현중화 선생에게 글씨를 배운 이후 혼자서 서예와 그림을 익혔다. 20년 전부터 서예의 대중성과 시대성 확보를 위해 전통서예와 현대서예 작업을 병행하고 있는 그는 한문 행초서로 한국서가

협회초대회장을 수상했고 열한차례 개인전을 가졌다.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 국제서법연맹 부회장, 제주도서예문화총연합회 대표회장 등을 맡고 있다.

그는 자신의 작업에 대해 "서예든 회화든 아니면 또 다른 뭐라고 불리어도 관계없다. 새로운 심미세계를 찾아 도전한 작은 흔적으로서 만족할 따름이다"라고 말했다.

개막 행사는 첫날 오후 3시에 열린다. 문의 064)772-1600. 전선희기자

## 시(詩)로 읽는 4:3 (8)

### 제주도에 바치는 레퀴엠 김준태

어른들은 그랬다. 이름이 이어도인지 갈매기 섬인지는 모르지만 6·25 한국전쟁이 터지기 3년 전엔가 제주도에서 무슨 난리가 일어나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었다고 말하면서 바로 이 무렵, 그 섬에 수백 명의 젊은이들을 실어다 퍼부어 놓고 두두두두두.....집단총살을 시켜버렸다고 귓속말로 수군 수군거렸다.

해송과 풍란이 바위마다 뿌리를 내리고 있는 섬. 어쩌면 유인도보다도 더 많은 슬픔과 더 많은 꽃과 주름의 잔해들이 쌓여있을지 모르는 그 섬을 바라보면서 어른들은 몸서리를 쳤다. 당시 아무도 말할 수 없었던 갈매기 섬, 아아 이어도-어부들은 이어도가 토해내는 미친 듯한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었다.

아흐, 그런데 어른들은 마치 무시무시한 비밀처럼 전설 같은 이야기를 서로서로 나누고 했다. 그 시절 소년 김준태가 엿들은 어른들이 나누는 대화의 한 맥목은 이러했다. -이어, 이어, 이어도를 본 사람은 죽는다-는 그것이 그 말이였다.

'레퀴엠(requiem)'은 위령 미사 때 드리는 음악이다. 정식명은 '죽은 이를 위한 미사곡'이다. 진혼곡, 또는 진혼미사곡 등으로 번역되어 쓰이기도 한다. 4·3항쟁과 광주5·18은 국가폭력에 의하여 희생자들이 발생하였다. 둘 다 역사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상처를 알기에 제주의 아픔이 더욱 각별하게 느껴진다. '역사적 사건'은 시간성 속에서 기억되어 현재의 우리 삶과 미래를 지배하는 원동력이다. 한국 근현대사의 중심 사건이라 할 수 있는 4·3항쟁과 광주5·18은 과거의 사건으로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다. 바로 역사적 기억, 그리고 다양한 문화 예술적 텍스트로 구현되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계엄령을 선포하고 피해 지역을 고립시켜서 역사 속에 묻었던 것은 4·3항쟁이나 광주5·18이나 무척 답은풀이다. 진실과 정의를 외면할 때 우리의 인권과 생명을 말살시킬 수 있는 나쁜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

시인 김준태(金準泰)의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는 1980년 광주5·18과 그 투쟁의 과정에서 군부에 의해 자행된 폭력에 대한 거부와 민주화를 향한 염원을 드러낸다. '제주도에 바치는 레퀴엠'도 마찬가지다. 섬이 가까운 전라도에서 어른들은 비밀처럼 전설 같은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다. 저 바다 건너 제주섬에서 무슨 난리가 일어나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었다는 이야기다. 그것은 "이어도를 본 사람은 죽는다"는 이야기다. 국가권력은 제주사람들을 '실어다 퍼부어 놓고 두두두두.....집단총살을 시켜버렸다'는 소문이다. 이 속에 학살로 인한 아픔이 존재한다. 김준태 시에 나타난 전반적인 시적 주제는 대체로 광주, 역사, 통일문제로 집약된다. 시인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명방법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생명존중과 사랑정신이다. <김관후 작가·칼럼니스트>

## 전통·현대서각의 만남 제주교육박물관 기획전

제주교육박물관은 특별기획전 '서각 현대와 만나다'를 이달 31일까지 개최하고 있다.

이번 기획전은 전통서각과 현대서각의 변화과정을 느껴 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주요 전시자료는 우리나라

대표적 청백인인 고불명사성선생 가문에 영조 임금이 하사한 어필사액 현판 '청백가성', 삼천서원에서 사용했던 양면목판 '존덕성 도문학' 등 전통서각 유물이다. 현대서각으로는 제주 서석각자회 회원들의 작품이 전시된다.

전시와 연계해 이달 18~19일 오후 1시에는 문패 제작 체험이 운영된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창간 30 since 1989 주년

젊은 신문! 날바른 뉴스! 정확한 보도!

정확하고 빠른 뉴스와 함께 정보화 시대를 이끌 제주의 대표 신문으로서 역할을 다하며 독자와 제주도민의 더 큰 신뢰와 사랑 받기를 기원합니다.

한라일보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학생화 | 운동화 | 캔버스화

뉴 NEW 신발마트 ☎ 756-9350

|위치| 보성시장입구 버스정류소 앞 (제주시중앙로 189)